

社說

기업연계 통한 고용창출 주목된다

제주도는 고용 계획 관리 대상을 일 정 규모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7일 민선8기 일 자리관리 전담 조직(TF) 2차 회의의 결 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고용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관광개 발사업, 투자진흥지구 등 5개 분야 102개 기업과 사업장의 고용 계획 인 원은 모두 3만353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실제 고용 인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533명으로, 고용 이행률은 31.4%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건설 원가 상승, PFI대출 난항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 도는 자금조달계획 등을 검토하고 사 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고용 계획을 제출하 지 않던 제조업과 농촌융복합산

업 인종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관광호 텔업 등 8개 분야 833개 기업을 대상으 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단 제주도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대 책에 기대가 크다. 결과에 따라 지역 현 인인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간 일자리 관리를 위한 대상 확대와 함께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 에서 고무적이다.

그 후와 역시 일자리라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런 점에서 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제주도의 방침은 바람직하고 타당하다.

이에 제주도는 정기적인 고용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으로 민간일자리 관 리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기업의 투자환경을 살리는 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실효성 있는 대 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전통시장 MZ세대 증가, 활성화 '기회'

제주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고물가 현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위기가 깊어졌던 소상공 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7일 BC카드 산금융연구소가 2019 년부터 2023년(1~4월)까지 5년 동안 전국 주요 전통시장 15곳에서 발생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은 5년 전 대비 42%, 연령군 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주동문시장의 경우, MZ세대 고객은 25%나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MZ세대 고객의 유입을 통해 매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대표적인 전통 시장은 매출 증가율이 대형마트 매출 증가세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은 온라인 소비 확산과 함께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고객 유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전통 시장 체감BIS는 전월대비 12.3포인트 오른 78.6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해 5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 다.

하지만 제주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은 이 달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국인 관광객 위축, 고물 가 등으로 전통시장 전방BIS는 전월 보다 12.3포인트 떨어진 72.4를 기록 했다. 6월 경기 전망이 암울하다는 것 이다.

그동안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 기업 편익, 외식업체의 확산과 맞물 리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국에 신 3고 현상 등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했지만 실질적인 효 과가 없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MZ세대 고객 증가 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만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효 과가 없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MZ세대 고객 증가 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만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효 과가 없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갤러리로 변신하는 설문대할망전시관

'백화점식' 탈피...실감영상 등 시청각 콘텐츠 보강

전시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못마땅 2024년으로 개관이 연기된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콘텐츠 보강사 업을 추진해 전시갤러리로 변신을 도 모한다.

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장철원)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문대할망전 시관 전시공간 활성화와 용역 결과를 공 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2012년

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819억원을 들여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과 공간 조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관람동선 부 재, 백화점식 콘텐츠 나열, 체험요소 부재, 패널 위주의 전시 연출 등의 지 적을 받으며 개관시기가 연거푸 연기 됐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6일 까지 예산1억4500만원으로 전시기 획 보완 용역을 진행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 9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전시콘텐츠 보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전시기획가 등 전문가 중심 사 무국(5명 내외)을 구성해 전시 시설 및 공간 조성에 있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패널 위주, 백화점식 나열에서 실감 영상 등 시청각 중심으로 전시관

을 구성하고 시설·유물을 재배치할 계 획이다.

또한 전시관별 공간특성을 고려한 상징적인 색채이미지를 구축하고 시 각적 흐름을 고려한 연속적인 배색을 설정·추진한다. 동선별 휴게 및 체험 공간, 전시갤러리 등도 조성한다.

신화의 통로에는 석상을 조명할 수 있는 영상 및 미디어 전시 연출을 추 가하고 민속관은 제주 민속자료 중심 으로 제주인의 생활사 전시 및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다.

역사관은 선사시대 시대별 제주역 사를 돌 유적 중심으로 구성하고 제주 4·3 연출 및 제주여성 소개 공간도 마 려한다.

신화관은 설문대할망신화, 제주역 사, 문화와 자연을 대형 실감 영상으 로 구현하고 도내·외 문화예술인의 참 여를 통해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창작 하는 등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민속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중복을 방 지하고 제주 돌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 차별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장철원 소장은 "제주 정체성, 향토 성, 예술성을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장 기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며, 소장유물 기증 확산 등 도민 참여 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성된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신화의 통로' 모습. 최지희 기자

전국 16개 교육청 통해 제주 4·3 알린다

도교육청 '4·3 전국화' 직무연수 시작...역사관 등 답사

제주도교육청은 8일부터 '2023년 전국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운 영을 시작한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4·3평화 재단과 함께 16개 시도교육청 교원 을 대상으로 전국교사 연수를 실시해 4·3 전국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특별시교육 청(6월 8일~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6월 30일~7월 1일), 경기도교육청 (7월 24일~25일)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가 실시된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실 시할 예정이다.

8일 연수는 평화와 인권으로 꽃피 우는 제주4·3교육 소개(홍일심 장학 사), 제주4·3의 이해 특강(박찬식 제 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4·3평화 공원 참배 및 북촌 너른손이, 옹팔발, 북촌초 답사(고정식 4·3평화·인권교 육 명예교사), 4·3평화·인권교육 수 업사례 발표(애월초 김소연, 서귀포

여고 고동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 사례 공유의 시간 및 토론 등으로 구 성됐다.

9일에는 4·3의 발발 장소인 제주북 초등학교와 관덕정을 방문하고 고성철 제주흥사단 문화유산답사회장의 해설 로 주정공장 4·3역사관을 답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의 역사뿐 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역사적 교훈을 연계해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를 위한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급

제주도가 2023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등록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장학금을 지 급한다.

청소년육성기금 '등록장학금'은 도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등록금 범 위 내 1인당 20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선정규모는 120명, 2억1100만원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나 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들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 비 장학금' 선정규모는 71명, 7100 만원이다.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제2차 예비·신규 인증 공고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5.6.4.)에 따라 2023년 신규예비 인증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6차산업화 추진 능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6. 사단법인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 구분 | 세부내용 |
|----------------|--|
| 대상주체 |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
| 사업장 입지 | □ 농촌지역 입지여부: 「농업진흥 및 식품산업기반법 제3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
| 형태 및 지역비율 (목적) |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목적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 작성시점에 주원료 목적 및 주생산품 등 기재, 제품명, 주원료 목적, 제품인 인증표시 가능 (예: 사과사과즙, 사과콜라 등)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목적 변경 시 변경 신청 □ 주원료 공급의 증명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기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되, 사업명, 소재지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만 시도와 협업을 하는 사업의 경우 입점 사업도 동일지역으로 가능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판매원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명 확인 |
| 사업성과 |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44,657천원 이상 및 50% - 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44,657천원 * 산출 근거: '19년 41,182천원, '20년 45,029천원, '21년 47,759천원 □ 창업 3년 미만 경영체는 2개년 평균 농가소득 적용 가능 - (해출액) 국제정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증명가능한 서류로 신청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에게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
| 기타 |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명여부 - (입지관리) 사업명, 소재지, 영업지 신고서, 입지관리 구역확인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기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확인서, 판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 수도배관물청소

◆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공사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9 201호

친절 문의 064. 742. 6234 010. 7599. 6234

문의처: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화: 064-722-7917 / 이메일: stormand@jeju6th.kr / Fax 064-722-7919

□ 농업경영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코칭 실시

- 기간: 현재-예산소진시
- 사업비: 컨설팅 지원 80%+자부담20% (1유형 또는 3유형, 유형별에 따라 자부담 상이)
- 문의전화: 064-722-7916

국비 무료

2023 실업자 국기 전기, 태양광(6개월과정)

전기 내선 설비 공사과정(교통비지급)
타일기능사 1개월과정(교통비지급)

■ 교과목

- ▷ 전기기능사 과정, 산업기사, 소방
- ▷ 컴퓨터 OA, 전산회계 과정
- ▷ 미용헤어, 네일 과정
- ▷ 제과 제빵 과정
- ▷ 커피 1급, 2급 창업과정
- ▷ 타일기능사 과정

(주)제주직업전문학교

문의 : 064)725-5545~6
주소 : 서사리 중앙여중 버스승강장
www.jejuvo.co.kr